

헌신적 공무원상 언론 등 각계에서 재조명 고법, 배평암 회장에 공무상재해 판정

지난 '99년, 한·일·러 어업협상 때 과로로 쓰러졌던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장(전 해양수산부 차관보)이 뒤늦게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으면서,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3국간의 팽팽했던 어업협상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언론과 공직세계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어업협상 당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간경화로 큰 수술을 받고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배평암 회장에게 “원고의 직무수행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음주가 간경변을 급속히 진전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의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 악화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것을 볼 때 이례적인 판결이란 것.



또, 지병으로 불이익에 처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주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YTN, MBN 등에서도 뉴스를 통해 “직무수행을 위해 과로와 폭음을 한 것이 간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한 고등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당시 3국의 어업협상 속에서 배 전 차관보가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을 덧붙였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내일신문 등 주요 신문사와 지역일간지 부산일보는 지면을 상당부분 할애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는 전·현직 공직 사회에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당시 어업협상의 카운터파트너였던 일본 수산계에도 알려져, 협상에 참여한 일본 측 인사들이 당시를 상기하며 다행스러움을 전하기도 했다.

해양수산 각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업무에 모범을 보였던 배 전 차관보가 뒤늦게나마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국가어항 시설물 98.3% 양호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위탁업무로 실시해온 국가어항 시설물에 대한 지난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정성이 대부분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국가어항 시설물 방파제(187개소), 물양장(156개소), 안벽(4개소), 방사제(17개소), 호안(102개소) 등 총 65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70.1%인 459개소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28.2%인

185개소가 구조물의 주요부는 건전한 상태지만 보조부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인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또, 9개소 1.4%는 보통 상태인 C등급, 2개소 0.3%가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그리고 즉시 사용금지 요하는 E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상반기 C등급에서 그간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A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강구항 물양장과 계마항

호안, 초도항 경사식 물양장 등 3곳이었다.

시설물에 대한 멀티빔 단면조사, 수상 및 수중부 외관 조사, 콘크리트 내구성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밀점검(수중조사)은 금진항, 안도항, 물건항, 김녕항 등 4개항 14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6개 시설물 A등급, 8개 시설물이 B등급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금진항과 안도항의 경우 방파제 일부 구간의 보수가 필요하며, 물건항과 김녕항은 모든 구조물에 대해 당장의 보수는 필요치 않지만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